

ORIGINAL ARTICLE

# 성(Sexuality)과 정신건강에 관한 통합적 문헌고찰

김잔디<sup>1</sup> · 류재금<sup>2</sup> · 오상준<sup>3</sup> · 신유진<sup>1</sup>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대학원생<sup>1</sup>,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사 ·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sup>2</sup>,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sup>3</sup>

## An Integrative Review of Sexuality and Mental Health

Kim, Jandi<sup>1</sup> · Ryu, Jae Geum<sup>2</sup> · Oh, Sangjun<sup>3</sup> · Shin, Youjin<sup>1</sup>

<sup>1</sup>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up>2</sup>Instructor · Researcher,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up>3</sup>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jojeong University, Yangju, Korea

**Purpose:** Sexuality is a fundamental element of human life and is closely related to mental healt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domestic research trends on gender,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an integrated review. **Methods:** Through four domestic databases, 15 papers were finally selected using the search terms 'sex',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Results:** Fifteen papers have been published since 2000 and 10 documents have been published since 2010. A majority of the studies were basic research and reviews, and these included four qualitative studies. Depending on the subject, we classified five articles into three themes by the developmental stages (youth, married women, and the elderly), eight sexual minority studies, and two other studie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dat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onclusion:** A more open social concern and approach to sex, the most basic human need, is warranted. The field of nursing practice requires more attention.

**Key Words:** Sexuality; Mental health; Psychological wellbeing; Sexual minority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탄생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 행위로부터 시작한다. 즉, 섹스 없이 인류는 존재할 수 없고 다시 말해 성(sexuality)은 태생적으로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성적인 것들(the sexual)을 총칭하는 말인데,<sup>1)</sup> 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사실은 인간의 욕구를 다룬 기존의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 중 생리적 욕구는 첫 단계이자 가장 강력한 욕

구로, 인간의 생존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호흡, 음식섭취, 수면, 배설 그리고 섹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되 가장 하위에 있는 생리적 욕구부터 차례대로 채우려 하고, 이 욕구가 충족되고 나서야 상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sup>2)</sup>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인 성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그 대상과 시기, 장소 등을 규제하며 때로는 권력 구조와 관련되어 그 폐해가 드러나기도 한다. DSM-III에서는 동성애는 질환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런데도 동성애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이며, 특히 보수기독교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조직적으로 배척하는 문화가 강하게

**주요어:** 성, 정신건강, 심리적 안녕감, 성소수자

**Corresponding author:** Shin, Youjin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Korea.

Tel: +82-2-740-8814, Fax: +82-2-765-4103, E-mail: aaabbc@snu.ac.kr

Received: Apr 12, 2021 / Revised: Apr 19, 2021 / Accepted: Apr 25, 2021

존재한다.<sup>3)</sup> 2005~2009년 시행된 제 5차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 포함된 질문인 ‘동성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서 한국이 2.81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평균인 5.967점에 비해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서도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동성애에 대한 강한 적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적인 이슈의 한 예로 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이 남학생 8.0%, 여학생 3.6%로 나타났고 이 중 2명 중 1명이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이와 함께 첫 성관계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성경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청소년의 성생활은 숨겨지고 있다. 이는 곧 안전한 섹스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사회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와의 관계에 대한 치밀한 성찰, 그리고 이와 관계된 현실적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 및 변화를 향한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sup>5)</sup> 미-투 운동을 비롯한 각종 성 관련 사건들이 이슈의 중심이 되며 섹슈얼리티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프로이트가 주장한 인간의 무의식은 성과 파괴성(공격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sup>6)</sup> 프로이트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 욕구를 가지며, ‘성’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본질적인 힘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리비도가 집중적으로 표출되는 신체 부위 즉, 성감대의 형성은 정신심리 발달의 토대가 되며, 성감대의 좌절 또는 탐닉으로 인한 고착은 인간의 태도, 감정,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주장했다.<sup>7)</sup> 결국,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상태의 평형이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동시에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자아성취 및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될 수 있다.<sup>8)</sup>

한편, 심리적 안녕감은 정신건강을 구성하는 긍정적인 요소로<sup>9)</sup> Jahoda<sup>10)</sup>가 제시한 긍정적 정신건강을 기반으로 Ryff<sup>11)</sup>가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개인의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삶의 목적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심리적 안녕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성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며 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축적되어 왔다.<sup>12,13)</sup>

이렇듯 성은 인간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교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서 여전히 성에 대하여 보수적인

편이다.<sup>14)</sup> 이러한 사실은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의 상담은 상담자의 가치관과 경험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데<sup>15)</sup> 성소수자의 경우, 대상자 내면의 성욕구와 정서적 고통의 깊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sup>16)</sup> 또한, 성에 대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로 표출되며<sup>17)</sup> 사회의 안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정신건강과 성을 다룬 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그 예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신건강을 포함한 사회적 건강 관련 연구는 2013년까지 단 27편에 불과하다.<sup>18)</sup>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성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정신건강과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 관련 연구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재까지 성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대상, 주제와 관점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탐색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적 문헌고찰(integrative review)을 통하여 성과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국내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확인하여 추후 연구 및 실무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성(sexuality)과 관련된 정신건강(mental health) 또는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이루어진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통합적 문헌고찰은 Whittemore and Knaff<sup>19)</sup>이 제시한 5가지 단계인 (1) 문제 인식, (2) 문헌검색 및 선정, (3) 자료의 평가, (4) 자료분석과 의미 해석, (5) 자료 통합을 통한 속성 도출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였다.

### 1. 문헌검색

이 연구에서는 성과 관련된 정신건강 또는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논문을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다. 문화는 그 사회의 여러 단면을 반영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해주므로,<sup>20)</sup> 국내의 연구를 종합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DBpia,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를 선택하였다. 검색어는 Mesh Term의 ‘Sexuality’의 하위 범주와 류지한<sup>1)</sup>의 Sexuality 개념을 참고하여[성 or 성경험 or 성생활 or 성적 욕망 or 동성애 or 양성애 or 이성애] and [정신건강 or 심리적 안녕]의 검색식을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창이 7개 미만이면 결과 내 검색방식을 통하여[정신건강 or 심리적 안녕]의 조합으로 검색하였다. 문헌검색은 2018년 10월에서 1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네 명의 연구자가 문헌검색의 전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그 방법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 2. 문헌선정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성과 관련된 정신건강 또는 심리적 안녕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이다. 이를 위한 문헌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은 모든 연령에 영향을 주므로 연구의 대상은 제한 없이 학령기 아동, 청소년, 성인과 노인 등

전 연령을 포함하였다(population). 둘째, 연구결과(outcome)는 정신건강(mental health) 또는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으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설계에는 실험연구, 단면조사연구, 코호트 연구, 질적연구, 종설 등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연구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문헌의 출판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배제 기준은 정신건강이나 정신적 안녕을 포함하지 않고 성(sexuality)만을 다룬 문헌과 성폭력, 성매매 등의 사회적 문제를 다룬 문헌과 성 역할을 다룬 문헌을 제외하였다. 연구결과가 없는 연구 프로토콜, 편집자 논평, 파일럿 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문헌 역시 배제하였다.

초기 검색으로 총 80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는데, 데이터베이스별로 Kmbase 228편, DBpia 108편, KISS 369편, RISS 100편이었다. 그중 중복으로 검색된 문헌 75편을 배제하고, 일차적으로 제목을 확인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652편의 문헌을 제거하였다. 이후 38편 문헌의 전문을 확보하여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5편의 연구논문을 선정하였다(Fig. 1).

## 3. 선정 논문의 질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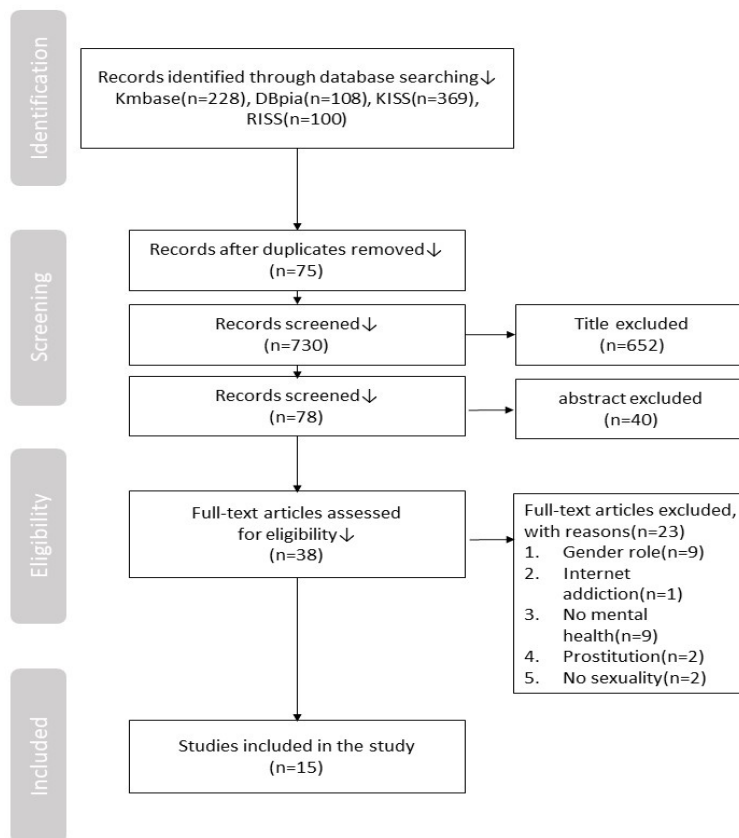


Fig. 1. Flow diagram of study selection process.

선정된 문헌 15편은 비무작위배정연구로서 단면조사연구 8편, 질적연구는 4편, Q방법론 1편, 체계적 고찰과 종설 연구 2편을 포함하였다. 대상 논문의 질평가를 위하여 질적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은 Critical Appraisal for Study Checklist (CASP)로, 양적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은 Cochrane Group의 Risk of Bias (ROB)와 Risk of Bias for Non-randomized studies (RoBANS) 도구를 사용하였고, 연구자들의 토의를 통하여 문헌의 질을 평가하였다. Q방법론과 종설은 논문의 질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 4. 자료분석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성(sexuality)과 관련된 정신건강 또는 심리적 안녕을 다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초점을 두었다. Whitemore와 Knalf의 자료분석방법을 참고, 관련 주제에 관한 포괄적 문헌검색을 통해서 선정된 문헌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트릭스를 작성하였다(Table 1). 각 범주는 연구대상, 연구설계, 연구변수, 연구내용, 주요 결과 내용으로 나누었고 이 범주에 따라서 발달 단계별, 성소수자, 기타 이슈의 세 주제를 도출하여 귀납적으로 주제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범주로부터 나온 자료들을 모두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연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공통으로 합의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선정논문의 질 평가 결과

8편의 비무작위배정연구에 대해서는 코크란의 로반스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비무작위배정연구 8편 중 한 편을 제외하고는 ‘대상군선정’ 항목에서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며, ‘교란변수’를 고려한 문헌이 4편, ‘중재(노출) 측정’ 항목에서 믿을 만한 자료 또는 구조화된 자료로서 위험도가 낮은 것이 3편이었다. ‘결과평가에 대한 눈가림’ 항목은 6편이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불완전한 자료’ 항목에서는 6편이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었고, 2편에서는 위험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선택적 결과보고’ 항목은 6편에서 ‘낮음’으로 평가되었다(Fig. 2).

4편의 질적연구에 대해서는 Oxford Centre for Triple Value Healthcare Ltd.의 CASP 도구를 통해 평가하였다. CASP 는 10개의 주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계, 모집, 방법, 반영성, 분석, 결과 등을 평가하며 윤리적 이슈가 포함된다. 총점

|             | Subject selection | Confounding variables | Exposure measurement | Blinding of outcome assessment | Incomplete outcome data | Selective outcome reporting |
|-------------|-------------------|-----------------------|----------------------|--------------------------------|-------------------------|-----------------------------|
| Kong (2002) | +                 | -                     |                      | +                              | +                       | +                           |
| Kim (2004)  | +                 | -                     |                      | +                              | +                       | +                           |
| Park (2002) | +                 | +                     |                      | +                              | +                       | +                           |
| Park (2015) | +                 | +                     | +                    | +                              | +                       | +                           |
| Shin (2013) | -                 | -                     |                      | +                              | +                       | +                           |
| Yu (2014)   | +                 | +                     | +                    |                                | -                       |                             |
| Lee (2003)  | +                 | +                     | +                    |                                | -                       | +                           |
| Choi (2011) | +                 |                       |                      | +                              | +                       |                             |

Fig. 2. Quality assessment of selected studies using risk of bias for non-randomized studies (RoBANS).

이 9~10점인 경우는 완벽, 6~8점인 경우는 우수, 3~5점인 경우는 보통, 1~2점인 경우는 나쁨으로 볼 수 있다.<sup>21)</sup> 질적연구 4편 중 2편은 9점, 10점이고 나머지 2편은 각각 8점, 7점으로 우수하여 질 평가에서 탈락한 문헌은 없었다.

#### 2. 선정 논문의 일반적 특성

최종 선정된 총 15편의 문헌 중 2010년도 이전 문헌이 5편(33.3%), 2010년도 이후 문헌이 10편(66.7%)이었으며 연구설계는 단면조사연구 8편(53.3%), 질적연구 4편(26.7%), 체계적 문헌고찰과 종설 2편(13.3%), Q방법론 연구 1편(6.7%)이었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포함한 성소수자 연구가 8편으로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였다.

#### 3. 선정 논문의 결과 분석

성과 정신건강/심리적 안녕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최종 선정된 15편의 논문들은 캐주얼섹스와 인터넷섹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 및 발달장애인의 성행동 및 성생활, 자기결정권, 성소수자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었으

**Table 1.**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Relevant Studies concerning Sexuality and Mental Health

| Theme               | Author (year)          | Research design                   | Study population  | Variables / Contents   | Key finding<br>- Sexuality & mental health / Psychological wellbeing   |
|---------------------|------------------------|-----------------------------------|---|--|--|
| Developmental stage | Yu, Kim and Kim (2014) | Cross-sectional study             | 37,297 middle school students   | Prevalence of sexual debut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risk behaviors, factors influencing sexual experie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ctors influencing the common sexual experience of boys and girls: economic status, experience of part time work, present smoking/alcohol consumption, drug use, depression last year, formal sex education</li> <li>▷ Boys only: living with parents, drinking alcohol, suicidal ideation</li> <li>▷ Girls only: father/mother's education level, perceived stress, grade</li> </ul>  |
|                     | Lee (2003)             | Cross-sectional study             | 1,742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 Relationship between -cybersexual addiction and psychosocial traits/ mental healt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ybersexual addiction: 7.8% (boys &gt; girls)</li> <li>▷ Personal characteristics: self-control</li> <li>▷ Family characteristics: support from family</li> <li>▷ Social characteristics: support from friends</li> <li>▷ Effects of cybersexual addiction on psychiatric symptoms: phobic anxiety &gt; psychosis &gt; anxiety &gt; somatization &gt; obsession &gt; hostility &gt; paranoia &gt; depression &gt; interpersonal sensitivity</li> </ul>  |
|                     | Park and Jung (2015)   | Cross-sectional study             | 966 college students  | Casual sex, psychological well-being, distress general characteristic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frequency of sexual behavior increases with males than females and with higher grades</li> <li>▷ The attitude and behavior of casual sex is positively related to psychological distress,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life</li> <li>▷ Casual sex effects negatively to happiness of self-realiz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steem</li> <li>▷ The higher the behavior of casual sex, the higher the psychological pressure, including depression, compulsion and impulse</li> </ul> |
|                     | Park (2002)            | Cross-sectional study             | 238 middle aged women who lived with their husbands   | Perceived health status, somatic symptom, family related stress, sexual satisfac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degree of health status of the subjects ha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somatic symptoms and the family related stress and had the positive correlation with spousal support and sexual satisfaction.</li> <li>▷ The scores of relational stress was higher in housewives than in professional women, in high economic conditions than in low economic conditions, and in extended families rather than in nuclear families</li> </ul>  |
|                     | Hwang and Shin (2014)  | Q-methodology                     | 31 elderly  | Questionnaire of 27 statements on senior sexual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ype I 'highly receptive type': sex life is a necessary, natural phenomenon for mental health.</li> <li>▷ Type II 'evasive type': negative emotions, prejudice, negative experiences</li> <li>▷ Type III 'instinct seeking type': sex satisfies instinctive desire, sex life is necessary for mental health as well as physical health</li> </ul>   |
| ISSUE               | Lee (2015)             | Review article                    | Study on sexual self-determination  |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sexual self-assertiveness, sexual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xual self-determination determined matters related to sexual life and made sexual self</li> <li>▷ Violating a person's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produced bad results on woman's mental health.</li> </ul>  |
|                     | Choi and Kim (2014)    | Qualitative study_group interview | 4 mother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3 special education educators, 3 social service providers | Explore perceptions and support needs of parents, special education educators, and social service providers towards intimate relationships of individual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itive effects of intimate relationships on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li> <li>▷ Impacts of parents' age and disability levels on attitudes of intimate relationships</li> <li>▷ Roles of parents and staffs in intimate relationships</li> <li>▷ Concerns about marriage and parenting</li> </ul>  |

**Table 1.**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Relevant Studies concerning Sexuality and Mental Health (Continued)

| Theme           | Author (year)          | Research design                     | Study population  | Variables / Contents   | Key finding<br>- Sexuality & mental health / Psychological wellbeing   |
|-----------------|------------------------|-------------------------------------|---|--|--|
| Sexual minority | Kong, Oh and No (2002) | Cross-sectional study               | 129 homosexual men and 114 heterosexual men in twenties and thirties  | Compare the quality of life and mental health-depression, suicide ets-in homosexual men with those in heterosexual men and to identify how the quality of life is related with mental healt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ge, educational level, income, alcohol intake, smoking and religion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homosexual group and heterosexual group</li> <li>▷ Homosexual group had poorer quality of life, lower familiar cohesion, higher depression and higher suicidal idea than heterosexual group</li> <li>▷ High depression and low familiar cohesion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in homosexual group</li> </ul>   |
|                 | Kim and Jung (2004)    | Cross-sectional study               | 8 gay men   | Gay-related stressor on mental health of gay men (stressor, coping skill, social support)/ depression, anxiety, somatization, financial stresso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DS related stressor w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of anxiety and somatization</li> <li>▷ Financial stressor w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of depression</li> <li>▷ Gay-related stressor explained the variance of anxiety and somatization than depression</li> </ul>   |
|                 | Kim (2017)             | Qualitative study - interview       | 12 male and female LGBT participants, ranging from 19~30 years of age | Families' responses and attitudes and the experiences of Korean LGBT individuals after revealing their sexual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determine how families' attitudes affected the mental health of these individual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st of the families had very negative responded and attitudes to the participants coming out and exhibited rejection or avoidant attitude; only a few of the families responded with receptive attitudes</li> <li>▷ LGBT participants reacted with friction and coping behaviors (persuasion, professional counseling, abandonment or avoidance, running away from home)</li> <li>▷ Most of the effects of the families' attitudes on the participants were negative psychological effects (anger, sadness, a sense of alienation, depression, anxiety, fear, trauma, helplessness, lowered self-esteem, alcohol dependence,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li> <li>▷ Receptive attitudes provided a sense of stability</li> <li>▷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were more likely to be hurt by their families' negative attitudes than by social attitudes</li> </ul> |
|                 | Shin (2013)            | Cross-sectional study               | 237 gay men and lesbians  |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perceived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gay men and lesbians in Kore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positive function of perceived social support effected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gay men and lesbians.</li> <li>▷ Perceived social stigma turned out not to be any effe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li> <li>▷ Self-esteem influenced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li> <li>▷ Homophobia proved to be positive effe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lesbians.</li> <li>▷ Str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casual effe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gay men and lesbians.</li> </ul>   |
|                 | Yeu and Lee (2006)     | Qualitative study - FGI & Interview | 8 gay men   | Exploring homosexual identity developmental process / identifying mental health in Korean gay me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homosexual identify developmental process: confusion - identity awareness - identity resistance - identity acceptance - identity pride</li> <li>▷ Homophobia and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gays caused severe mental health problems</li> <li>▷ High-risk stage: gay suffered from guilty feelings, fear, depression, suicide, self-denial, isolation, difficulty in human relationship, pain and anger</li> <li>▷ Stable stage: guilty feelings, shame, self-disgust, impatience and family burden were decreased remarkably after self-acceptance</li> <li>▷ Health promotion stage: peaceful and happy because they were freed from their psychological distresses with gay pride</li> </ul>   |

**Table 1.**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Relevant Studies concerning Sexuality and Mental Health (Continued)

| Theme           | Author (year)            | Research design                               | Study population   | Variables / Contents   | Key finding<br>- Sexuality & mental Health / Psychological wellbeing   |
|-----------------|--------------------------|---|--|--|--|
| Sexual minority | Lee (2018)               | Qualitative study - Psychoanalytic case study | M-30, Gay man who is an anal-narcissist.   | A ten-year psychoanalytic treatment of M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anal sexual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s relationships, including the transference-counter transference traversed between perpetrator versus victim, narcissism versus object love, connection versus disconnection. These results were utilized to conceptualize M's case in terms of the origins of anal sexuality, and its dynamics relating to character, sex, and object relations</li> <li>▷ Anal sexuality was used as the core concept in depicting M's case. Therefore, sexuality is still essential in psychoanalytic theory and practise</li> </ul>   |
|                 | Lee, Park and Kim (2014) | Systematic review                             | 101 clinical studies and 27 social health studies (non-clinical research); 13 were about mental health | Review of health studies on LGBTIQI population until 31/12/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inical researches include case reports (N=58), clinical test (N=22), and surgery (N=21). The majority of clinical articles were about intersex (N=74) and transgender (N=22). Among the 27 social health studies, 13 were about mental health. Most of social health studies (N=25) were about gay and lesbian</li> <li>▷ Lack of research on LGBTIQI people, and no Cohort. Limited health-related variables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research topics related to LGBTIQI people are broad, such as medical behavior research, medical accessibility, quality of life, etc.)</li> </ul> |
|                 | Choi and Yoon (2011)     | Cross-sectional study                         | 98 lesbian 101 gay men   | This study investigated determinants of depression of homosexual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3% of homosexuals have clinical level depression symptoms and the mean of depression of lesbians was higher than that of gay men.</li> <li>▷ Predictive variables of depression proved to be different between gay men and lesbians; childhood sexual abuse, self-esteem, and family suppor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of gay man while only self-esteem contributed to predict that of lesbians</li> <li>▷ 56.1% of lesbian, 72.3% of gay experienced childhood sexual abuse - positive effect with depression</li> </ul>   |

며 모든 연구가 2000년 이후에 수행되었다. 3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발달단계별로 중학생부터 노년기까지의 다양한 성생활을 다룬 5편의 문헌을, 두 번째 주제는 성소수자 연구 8편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범주로 묶이지 않는 주제로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2편을 다루었다.

**1) 발달단계별 성과 정신건강**

10대 청소년의 성생활과 정신건강을 다룬 문헌은 두 편이 존재했다.<sup>22,23)</sup> 중학생의 성격형 영향요인에 흡연, 약물사용, 우울, 스트레스, 자살생각 등이 포함되었는데, 청소년의 섹스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섹스중독 비율은 8% 가까이 나타나서 이는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결혼 이전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성생활은 불

안정한 면이 있었다. 특히 캐주얼섹스<sup>25)</sup>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동시에 심리적 안녕은 낮아지며 강박과 충동을 포함한 심리적 압박감 또한 높아지고 있었다.<sup>24)</sup>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sup>8)</sup>에서는 배우자의 지지와 성생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게 나타났다. 발달단계별로 10대와 20대 초반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냄을 단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혼 성인의 성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는 더 발견할 수 없었다. Q-방법론을 사용하여 노년기 성에 관한 인식을 유형화한 연구<sup>25)</sup>에서 유형 1과 3에 속한 노인들은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성생활은 필요한 것임을 강조했다. 유형 2는 회피형이었고, 이를 통해 노년기 성에 대한 대상자들의 다양한 태도를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2014년 Lee 등<sup>18)</sup>이 시행한 성소수자들의 건강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13편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 5편과 이후에 이루어진 2편의 연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Choi와 Yoon<sup>26)</sup>은 레즈비언과 게이 약 200명을 조사하여 동성애자의 51.3%가 임상적인 우울증상을 보이고, 레즈비언의 56.1%와 게이의 72.3%가 경험한 아동기 성폭력이 우울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Kong 등<sup>27)</sup>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비교하여 동성애자군에서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고 우울 및 자살사고가 높다고 보고했다. Shin<sup>28)</sup>의 연구에서는 레즈비언과 게이 사이의 삶의 질에 미치는 정신건강 관련 요인을 비교하여 두 군 모두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지목했다. 또한, 레즈비언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지지감이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게이에게는 반대로 나타나서 성소수자 집단이 동질하다고 말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Kim과 Kwon<sup>9)</sup>은 동성애자의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해 에이즈 관련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로 범주화했으며 이들은 각각 불안과 신체화, 우울 등과 깊은 연관성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높고 부모가 동성애를 수용할수록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간접적인 대처전략은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동성애 수용 정도에 관해 2017년 Kim의 연구<sup>30)</sup>에서 역시 가족의 태도가 성소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커밍아웃에 대해서 가족이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성소수자들은 분노와 슬픔,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반대로 가족의 수용적인 태도로 인하여 성소수자는 안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외에도 고전적 항문기 성격 요소와 동시에 항문-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동성애자 M을 대상으로 한 정신분석학적 사례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항문성욕’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넘어서 성격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상관계나 욕망, 권력의 다양한 구조에 연결된 광범위한 개념이라 밝혔다.<sup>6)</sup> 이는 본능적 욕구의 방출과 함께 대상과 정서를 없애려는 시도와 동시에 사랑과 회복을 향한 처절한 몸무림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항문성욕은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한 개념임이 드러났다.

### 3) 그 외 문헌

도출된 연구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큰 주제로 묶이지 않는 두 개의 문헌이 포함되었다.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연구들에

대한 리뷰를 통해<sup>31)</sup> 성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이러한 성적 자기주장 정도는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이나 위험한 성행동 횟수 및 데이트폭력과도 상관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성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 중 하나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문헌에서는 부모와 특수교사, 사회복지사를 그룹과의 면담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를 다루었다.<sup>32)</sup>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서 이성교제가 미치는 긍정적 효과 및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발달장애인 역시 이성교제의 경험을 통하여 기쁨이나 행복과 같은 정서적 충만을 표하였다. 하지만 부모와 특수교사, 사회복지사들은 향후 문제인 결혼 및 자녀 출산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염려를 표하였다. 연구자는 향후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성 발달과 이성교제를 위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는 의

이 연구는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론을 사용하여 성(sexuality)과 정신건강(mental health) 또는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을 다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선정된 15편의 논문은 모두 2000년 이후에 수행되었는데, 그중에서도 10편의 문헌이(66.6%) 2010년 이후에 발표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성과 정신건강에 관련된 논의는 시작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성 역할, 성 평등, 성폭력, 성매매 등의 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배제하고 검색을 진행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성과 정신건강을 다룬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편의 리뷰논문과 함께 8편의 논문이 단면조사연구 및 4편의 질적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성을 주제로 한 중재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15편의 연구에 대해서 인간의 발달단계별(중학생, 청소년, 대학생, 중년여성, 노인), 성소수자 연구(각종 동성애 이슈, 항문성교 등), 이슈별(성적 자기결정권,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 세 주제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사실 이는 동질적인 기준의 분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된 성(sexuality)과 정신건강에 관련된 연구 수가 제한되어 나타나는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발달단계별로 분류한 군의 주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학생, 청소년을 다룬 두 편의 연구이다. 청소년 집단에서의 인터넷섹스 비율이 8%에 육박하고 이는 각종 부정적인 정서적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요인에서 역시 우울과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감정이 다수 도출되었다. 이는



첫 성경험 시기가 13.6세이고,<sup>33)</sup> 청소년의 성경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을 포함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실제로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의식 및 성태도를 증진시켰다는 결과,<sup>34)</sup> 성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남녀 중학생의 성경험률을 각각 1.67배, 1.5배 증가시켰다는 결과<sup>23)</sup>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학생 역시 파트너가 안정적이지 않은 성생활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결혼 전 인구집단에서 성에 대한 태도 및 성과 관련된 행동으로 인하여 안정적이지 않은 심리적, 정신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성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성관계 경험 비율에 기초한 실태조사연구로, 심리적 특성 및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sup>24)</sup>

중년의 성생활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다룬 논문은 단 한 편이 존재하였다. 현재 결혼생활 중인 40~60대의 중년여성에 관한 연구였고, 만족스러운 성생활과 정신건강과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국내 중년남성의 성생활과 정신건강을 다룬 연구는 드물었는데, 중년남성의 성역할 스트레스와 위기감을 보고한 연구<sup>35)</sup>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중년남성의 성을 다루는 데에 성매매 실태에 관한 논의를 배제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성매매 시장의 시장 규모는 37억원에 달하며 이는 매우 높은 수치다.<sup>37)</sup>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따르면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구매 경험이 있는가'의 질문에 42.1%(2016년 50.7%)의 남성이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일반남성의 성구매 경험 역시 10%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정확도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어 모두 추정치이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성매매 규모는 짐작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듯 성에 대한 사회의 양면성을 고려할 때 중년남성의 성과 관련된 이슈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 및 관심이 필수적이다.

'죽어도 좋아', '은교' 등의 영화로 인해 노년기의 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다. 70세 이상 고령 노인의 46.2%가 현재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연구<sup>37)</sup>를 비롯하여 노인의 성욕구 및 성생활과 관련된 문헌이 증가하는 추세이다.<sup>38,39)</sup> 하지만 노년기의 성과 정신건강을 다룬 내용은 노년기의 성생활을 유형화시킨 연구<sup>25)</sup>에서 I, III 유형에 성생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었다. Bang과 Nam<sup>40)</sup>의 노인의 성욕구 대처행동이 주관적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우울과 부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년기

의 우울을 포함한 정서적 문제가 점점 사회적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sup>41)</sup> 노년기의 성과 정신건강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소수자를 다룬 문헌이 8개로 전체 분석문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2014년 발표된 성소수자의 건강과 관련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성소수자 연구는 그 주제나 대상, 변수 등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국외의 경우 2015년에 성소수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체계적 문헌고찰이 시행되었다.<sup>42)</sup> 199편의 문헌이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성소수자 내에서의 다양한 하위그룹에서 우울과 불안, 자살시도나 약물 등의 문제에 관련하여 분석이 시도되었다. 국내의 경우 연구 자체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국내 중재연구는 한 편도 존재하지 않았다. 2011년 동성애자의 절반가량이 임상적 우울증상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것을 고려할 때,<sup>26)</sup> 추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기 위하여 간호학적으로 다양하고 세심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를 제외하고 사회적 약자를 다룬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이성 교제를 다룬 연구가 유일했다. 발달장애인의 성을 깊이 다루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장애인의 성생활과 정서적 심리적 지표의 관계를 나타낸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정신과 실무현장에서는 편견 등을 이유로 해서 정신장애인들의 성 관련 기본 욕구에 적절한 관심과 중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sup>43)</sup> 즉,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게 있어서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간호와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44)</sup> 정신장애인들의 성지식이 높지 않고 간접적 성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일련의 결과는,<sup>45)</sup>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의 성과 관련되어 간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성과 정신건강/심리적 안녕에 대한 문헌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결과, 성과 정신건강은 깊게 관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자체가 매우 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성과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발달단계별로 더 세밀한 대상군과 주제에 관한 후속연구가 요구되며,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성에 대해서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어떠한 중재연구도 발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간호사들이 앞으로 중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성(sexuality) 관련 이슈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을 놓고 문헌검색을 시행하였지만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을 나

타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문헌고찰 역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성과 정신건강 또는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그 결과 첫째, 성과 정신건강과 깊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발달단계별로 성과 정신건강, 심리적 안녕을 다룬 연구는 있었으나 성 정체성이 수립되고 발달하는 학령기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과 노년기에 관한 관심 역시 미비한 수준이었다.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나 조사연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둘째, 대부분 문헌이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들이었고 일부 질적 연구들이 존재했다. 이 연구들의 결과에서 성과 관련한 정신건강 수준이 취약하다는 근거가 쌓여 왔지만, 성소수자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한 중재연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성에 관한 연구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즉, 성과 관련한 정신건강 또는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성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성과 관련된 다양한 속성들을 밝힘으로써 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성과 관련한 정신건강 또는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성(sexuality)과 정신건강 또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해서 현재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인 욕구로서의 성에 대한 다양성과 개별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또한 이를 통해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의 향상을 나아가기 위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Kim EH.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sexuality and sexual ethics. *Philos Stud.* 2010;89:99-128.
- McLeod S. Maslow's hierarchy of needs. *Simply Psychology.* 2018;1:1-8.
- Ministry of Education. The twelf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Sejong: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 Lee NY, Baek JY. 'Politics of disgust': Korean conservative protestant discourses against homosexuality. *PNU J of Womens Stud.* 2017;27(1):67-108.
- Lee NY. Radical feminism and sexuality-theorizing history and politics. *Econ Soc.* 2009;10:37.
- Lee JH. A psychoanalytic case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anal sexuality. *J Contemp Psychoanal.* 2018;20(2):93-133. <https://doi.org/10.18873/jlcp.2018.08.20.2.93>
- Freud S. Three essays on sexuality and other works: The 1905 edition. London, New York: Verso Books; 2017.
- Park MS. The relationship of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ith somatic symptoms, family related stress, spousal support and sexual satisfaction in the middle aged women.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2;11(1):33-42.
- Veit CT, Ware JE.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in general populations. *J of Consult Clin Psychol.* 1983;51(5):730-42. <https://doi.org/10.1037/0022-006X.51.5.730>
- Jahoda M. Conformity and independence: a psychological analysis. *Hum Relat.* 1959;12(2):99-120. <https://doi.org/10.1177/001872675901200201>
- Ryff CD.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 Pers Soc Psychol.* 1989; 57(6):1069-81. <https://doi.org/10.1037/0022-3514.57.6.1069>
- Kertzner RM, Meyer IH, Frost DM, Stirratt MJ. Soci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the effects of race, gender, age and sexual identity. *Am J Orthopsychiatry.* 2009;79(4):500-10.
- Shane A, Kavanaugh, Ashley B, Taylor, Greta L, Stuhlsatz et al. Family and community support among sexual minorities of color: the role of sexual minority identity prominence and outn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J GLBT Fam Stud.* 2020;16(1): 1-17. <https://doi.org/10.1080/1550428X.2019.1593279>
- Jin HG. A study on the gender of confucianism. *Korean J Leg Med.* 2002;5(2):305-22.
- Kwon BS, Kim MK. A study on the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f counselors. *J East-West Nurs Res.* 2010;13(2): 47-63.
- Yoon SO, Sung SY.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gender experience of lesbians who are receptive to sexual orientation. *Korean J Counsel Psychotherapy.* 2011;23(4):1017-49.
- Lee YS, Kwon BM, Lee DH. The relationships among homosexual experiences, sexual attitude, sexual homophobic,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Korean J Rehabil Psych.* 2012;19(1): 129-47.
- Lee HM, Park JY, Kim SS. LGBTQI health research in South Korea: a systematic review. *J Health Soc Sci.* 2014;36(1):43-76.

19. Whittemore R, Knafk K. The integrative review: updated methodology. *J Adv Nurs*. 2005;52(5):546-53.
20. Agocha VB, Asencio M, Decena CU. Sexuality and culture. In: Tolman DL, Diamond LM, Bauermeister JA, George WH, Pfaus JG, Ward L, editors. *APA handbook of sexuality and psychology, Vol. 2: Contextual approache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4;2:183-228.  
<https://doi.org/10.1037/14194-006>
21. National Health Service.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 Birmingham: Qualitative research*. UK: National Health Service; 2012. Available from: <http://medweb4.bham.ac.uk>
22. Lee SJ. A study on psychosocial trait and mental health of the adolescent's addiction to cybersex. *Korean J Soc Welf*. 2003; 55:341-64.
23. Yu JO, Kim HH, Kim JS.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debut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Child Health Nurs Res*. 2014;20(3):159-67.  
<https://doi.org/10.4094/chnr.2014.20.3.159>
24. Park MS, Jung S.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asual sex to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istress. *Korean Rev Corp Manag*. 2015;6(2):82-107.  
<https://doi.org/10.20434/krmc.2015.08.6.2.82>
25. Hwang SJ, Shin WS. The subjective perception types of the elderly on senior sexuality. *J of Hum Stud*. 2014;35:207-34.
26. Choi EH, Yoon HM. Effects of childhood sexual experience, self-esteem, coming-out,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gay men and lesbian women. *Ment Health Soc Work*. 2011;37: 231-54.
27. Kong SU, Oh KS, No KS. The comparison of the quality of life and mental health in homosexual men and heterosexual me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2;41(5):930-41.
28. Shin SB. A study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gay men and lesbians in Korea. *Health Social Welf Rev*. 2013;33(1): 380-416.
29. Kim EK, Kwon JH. The impact of gay-related stressor on mental health of gay men. *Kor J Clin Psychol*. 2004;23(4):969-81.
30. Kim JY. Mental health in LGBTs resulting from family rejection: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Korean J Cult Soc Issues*. 2017;23(4):605-34.  
<https://doi.org/10.20406/kjcs.2017.11.23.4.605>
31. Lee EJ.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in psychological studies. *Korean J Women Psych*. 2015;20(3):427-41.  
<https://doi.org/10.19158/kjwp.2015.09.20.3.427>
32. Choi BC, Kim YR. A qualitative study on perceptions and support needs towards the intimate relationships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periences of parents and staffs. *J Intellect Disabilities*. 2014;16(3):69-92.
33.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eigh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VIII)*.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34. Ryu MS, Ko KH, Park JW, Seo SS, Park JW, Seo YY, et al. The effects of sex education program on adolescence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attitudes. *Mental Health Policy Forum*. 2008;2(1):140-61.
35. Mo YS, Kim JH. Gender role conflict and emotional mid-life crisis in Men: The mediating role of fear of intimacy. *The Women's Studies*. 2016;91(2):97-126.
36. No JH, Lim EJ.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f community-dwelling rural elders. *J Korean Gerontol Nurs*. 2011; 13(2):109-19.
37. Kim MY, Jo SH, Jo BI, Park YA, Song BK, Choi SL. Illegal underground economy of organized crime groups: an empirical analysis of traditional sources of income for organized crime group.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5.
38. Jeon KH, Oh HJ, Kim JS. A study on the types of the experiences of sexual life of elderly men living alone. *Asia-pacific J Multimedia Serv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 2017;7(8):853-62.
39. Yoo YS. The effects of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on sexual satisfaction in the aged. *J Korea Entertain Ind Assoc*. 2017; 11(6):237-45. <https://doi.org/10.21184/jkeia.2017.08.11.6.237>
40. Bang YS, Nam KM. The influence of sexual attitude and sexual need coping behavior of the elderly on their subjective happiness-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health and depression. *J Welf for the Aged*. 2009;46(1):215-38.  
<https://doi.org/10.21194/kjgsw..46.200912.215>
41. Kim DB, Shon ES.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depression in elderly. *J Korean Gerontol Soc*. 2005;25(4):167-87.
42. Plöderl M, Tremblay P. Mental health of sexual minorities. A systematic review. *Int Rev Psychiatry*. 2015;27(5):367-85.  
<https://doi.org/10.3109/09540261.2015.1083949>
43. Kang T, Kang G, Han HR, Roh S. Marital and sexual satisfaction among patients with schizophreni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2;51(5):263-70.
44. Earle S. Disability, facilitated sex and the role of the nurse. *J Adv Nurs*. 2001;36(3):433-40.  
<https://doi.org/10.1046/j.1365-2648.2001.01991.x>
45. Park SM, Kim JY, Ko SH. The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psychiatric patients. *J Digit Convergence*. 2017;15(9):261-71.  
<https://doi.org/10.14400/JDC.2017.15.9.261>

## Appendix

1. Lee JH. A psychoanalytic case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anal sexuality. *J of Contemp Psychoanal*. 2018;20(2):93-133.  
<https://doi.org/10.18873/jlcp.2018.08.20.2.93>
2. Park MS. The relationship of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ith somatic symptoms, family related stress, spousal support and sexual satisfaction in the middle aged women.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2;11(1):33-42.
3. Lee HM, Park JY, Kim SS. LGBTQI health research in South Korea: a systematic review. *J Health Soc Sci*. 2014;36(1):43-76.
4. Lee SJ. A study on psychosocial trait and mental health of the adolescent's addiction to cybersex. *Korean J Soc Welf*. 2003; 55:341-64.
5. Yu JO, Kim HH, Kim JS.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debut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Child Health Nurs Res*. 2014;20(3):159-67.  
<https://doi.org/10.4094/chnr.2014.20.3.159>
6. Park MS, Jung S.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asual sex to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istress. *Korean Rev Corp Manag*. 2015;6(2):82-107.  
<https://doi.org/10.20434/krmc.2015.08.6.2.82>
7. Hwang SJ, Shin WS. The subjective perception types of the elderly on senior sexuality. *J of Hum Stud*. 2014;35:207-34.
8. Choi EH, Yoon HM. Effects of childhood sexual experience, self-esteem, coming-out,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gay men and lesbian women. *Ment Health Soc Work*. 2011; 37:231-54.
9. Kong SU, Oh KS, No KS. The comparison of the quality of life and mental health in homosexual men and heterosexual me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2;41(5):930-41.
10. Shin SB. A study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gay men and lesbians in Korea. *Health Social Welf Rev*. 2013;33(1):380-416.
11. Kim EK, Kwon JH. The impact of gay-related stressor on mental health of gay men. *Kor J Clin Psychol*. 2004;23(4):969-81.
12. Kim JY. Mental health in LGBTs resulting from family rejection: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Korean J Cult Soc Issues*. 2017;23(4):605-34.  
<https://doi.org/10.20406/kjcs.2017.11.23.4.605>
13. Lee EJ.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in psychological studies. *Korean J of Women Psych*. 2015;20(3):427-41.  
<https://doi.org/10.19158/kjwp.2015.09.20.3.427>
14. Choi BC, Kim YR. A qualitative study on perceptions and support needs towards the intimate relationships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periences of parents and staffs. *J Intellect Disabilities*. 2014;16(3):69-92.
15. Yeu KD, Lee MH. The homosexual identity development process and mental health in Korean gay men.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06;15(3):289-98.